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현석



1년 365일 어느 하루인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를 바꾸며 살아간다. 그래서 1월 1일은 1년 중에 아주 특별한 날이다. 새날이다.

새해 새날을 맞아 사람들은 새해의 소망을 설계하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다짐도 한다. 인간의 삶 가운데 지난 일을 반성해 보고 새로운 설계를 다듬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성현의 가르침대로 일일삼성(一日三省)을 생활화한다면 정말 좋을 일이지 않을까. 그러기에 새해 초의 설계와 다짐이 누구에게나 중요할 듯하다.

새해를 맞으며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두 단어가 머리를 뺨돈다. 어느 해의 개인적 소망을 짓고 공평성이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앞서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잘 지켜왔다는 자랑스러움과 뒷걸음을 친다는 안타까움과 더 잘 키워야 하겠다는 간절함이 뒤섞인 아찔한 마음이다. 이처럼 공동선에 빚대다 보면 어렵고 잘못된 것을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기 쉽다. 그래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소망한다면 스스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잡아 다짐을 해 본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데, 내 주장에 앞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자기 주장만 던져 놓고 상대의 말은 들을 생각도 않는 행태들을 답답해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

새해의 다짐, 민주적 행태 익히기

이 그렇지는 않은지, 각별히 조심하기로 하자.

대화는 언어로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와 독재, 제도권과 재야의 대립구도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 각각 즐겨 쓰는 용어가 따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말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 해독이 쉽게 가지지 않아서, 그 말에 담긴 현실의 실질적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그 용어만 함부로 화답씩 놀라 반대를 하는 경우를 지금도 많이 본다.

세상은 변해서 다양한 양상을 띠어 가는데 이를 표현하는 용어는 오로지 두 개에 머물러 있다 보니, 두 용어의 스펙트럼이 겹쳐다 보면 실질의 내용은 서로 상대

편에 속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예컨대, 학교 평준화와 특성화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라고 이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신중해야 할 일이다.

사실이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그 사실이 자기에 불리하면,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행태가 아직도 많다. 특히 추상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억지로 외면해버리기도 한다. 이는 거짓이다. 사실에 맞추어 생각을 바꾸거나,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실만은 인정해야 옳을 일이다.

거짓이 횡행하면 민주주의는 어렵다. 하물며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앞장선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압담해 진다. 민주주의의 조차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란 말인가? 그런데 의외로 이런 행태에 쉽게 빠진다. 그래서 나만은 아니라고 자신하기 어렵다. 스스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기로 하자.

많은 사람이 정치를 더럽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서 뽑아 놓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른바 정치인을 욕한다. 정치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선거를 치르려면,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없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포부가 있어도 감히 정치에 나설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짝을 후보가 없다고도 한탄하기도 한다. 약속한다. 지역구도에 의존하는 정당에서 유권자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후보를 내놓고 괴롭히는 것도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누가 어떻게 선출함으로써 바꿀 것인가?

유권자만이 바꿀 수 있다. 주인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치인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후보 중에 조금이라도 깨끗할 듯싶은 후보를 가려 뽑는 노력, 일 잘할 사람을 애써 찾아 키우는 노력, 지역구도에 의존하는 정당일수록 민심을 존중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만, 민주정치가 제대로 될 것임은 정한 이치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인품과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열정이 있는 후보들이 힘이 덜 더러워 많이 나서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유권자와 후보가 손뼉을 마주쳐야 상승효과가 날 것이다.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노력하기로 하자.

2011년, 이 땅에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고, 평화가 튼튼히 뿌리내렸으면 좋겠다.

(전 곡성군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조현호



매주 화요일이면 필자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데이트'를 한다. '데이트' 장소인 401호 법정은 면적이 204㎡(61.7평)나 되고, 방정석 수가 135석이나 되는 광주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다.

그곳에서 필자는 올 한 해 동안 수 천 명의 민사사건 당사자와 '데이트'를 했다. 매주 한 번 있는 '데이트'에서 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해 필자는 나머지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있는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은 무엇이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

노릇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지법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호사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당사자들이 개인 간에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거래를 하다 다름이 발생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도 거래 당시에는 서로 좋게 지내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

만족시킬 수 있을지? 등등 갖가지 고민과 상상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들어가기 직전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위엄있게 법정 문 앞에 서 있는 태극기를 응시하면서 "오늘도 온화하면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는 기도를 하면서 법정에서 들어선다.

필자가 올해 401호 법정에서 만난 당사자들은 청구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먼저, 민사소액 사건은 대개 당사자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당사자의 소송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장이 정리되지 않거나 원활한 재판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재판의 지연이나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가능성이 있음에도 소송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다는 사법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하여 별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사가 임의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도 없는

사이에서 차용증을 받지 아니하여 증거는 없으나, 지금껏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말을 믿고 승소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들을 보게 된다. 재판장으로서 간혹 당사자들의 관계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심증으로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어쩔 수 없이 패소 판결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때면 안타까움이 든다.

필자는 그러한 경우 가급적 당사자들에게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하도록 조정을 시도하곤 하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개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판결을 선고하면 자신이 승소할 줄 알면서도 양심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데이트'를 마치고 401호 법정을 나설 때마다 필자가 법정에서 들어섰을 때 방청석을 가득 메운 채 필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당사자들이 떠난 텅 빈 방청석을 보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당사자들이 나의 재판결과에 만족했을까?", "혹시 나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가지진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다음 '데이트'는 더 멋진 '데이트'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정석원



설원의 장쾌함과 눈꽃을 함께 볼 수 있는 겨울산행의 계절이 돌아왔다. 탁 트인 시야에 목은 채증이 내려갈 듯 한 겨울산은 색다른 낭만과 스틸을 제공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악사고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행코스에 대한 정보와 날씨를 확인해 그에 따른 장비 준비와 사용법,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산행을 시작해야 한다. 산악사고는 일반위험산행사고 30%, 암릉등반사고 30%, 암벽등반사

한다.

둘째, 장비와 복장을 완벽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산 정상부의 갑작스런 날씨변화나 짧은 일조시간 등 수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출발 전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비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얼어 있는 바위를 지나기 위해서는 아이젠 발뭍 부분으로 얼음을 찍어가면서 디며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아이젠만 믿고 내려오다 무게중심을 잃고 계곡 쪽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비를 착용했

겨울 산행 안전하게 하려면

고 40%의 비율도 발생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무리한 산행이나, 준비부족, 장비사용법 미숙 등 단순한 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 단일한 관행을 버리고, 체계적인 산행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만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산에서 마시는 술은 바로 깬다는 속설을 믿고, 정상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술은 평행간격을 둔하게 하고, 활동 감각과 주의력,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 산행 전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고, 평소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산행을 할 경우, 돌연사 발생빈도가 증가하거나, 산행 중 체력이 떨어져 하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코스를 선택해야

다는 것에 안심하지 말고, 산행에 맞는 기구를 선택했는지,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체온유지이다. 저체온증은 특히 몸이 젖었을 때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능선에 오른 후 잠시 쉬 때는 바로 보온 의류를 꺼내 입고, 따뜻한 물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산은 아름다운 만큼,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산행 전 많은 준비를 요한다. 많은 산행경험만을 믿고 안전한 산행을 계속하기보다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위험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산행을 해야 한다. 산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제부터 즐거운 안전산행을 위해 산행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내장산국립공립원백암사무소장>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 에티켓 잘 지켜야

최근 발목 인대 수술을 받은 친구를 병문안 갔다. 얼굴이 붓고 눈이 쾅한 것이 "발목 인대 수술도 그렇게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친구 말은 병원에서 밤새 화재경보가 3차례나 울려 잠을 설치느라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불이 나거나 화재위험이 있어 경보가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내 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 경보기가 작동한 것이다. 결국 병원 전체가 소란을 빚으면서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됐다. 요즘 병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실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추운 날씨 속에 환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화장실과 복도에서 몰래 숨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병원은 각종 질병으로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며 어린이, 여성, 노인 환자들도 많은 곳이다. 꼭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는 서로에 대한 에티켓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학석·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시설

구제역에 AI까지 지역 방역 만전 기해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특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전남지역 축산농들은 구제역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 와중에 가금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AI가 인접지역인 전북 익산과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초긴장에 빠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당국이 방역에 허둥대는 사이 구제역이 관리지역을 넘어 발병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AI도 구제역과 같이 일과 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전국 오리 사육량의 48%, 닭 사육량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 축산농은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뻔하다. 어떻게든 구제역과 AI의 지역 반입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천안과 익산의 AI 바이러스가 최근 야생상태의 해남 가창오리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구제역 확산 양상은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과 허술한 방역망 관리 탓이 크다.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지원 남구성만 해도 그렇다. 발생 8일 만에 가동해 들어가 초동대처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당국의 안정적인 '뒷배'가 시야를 확보한 것이다.

방역체계의 전면 보완이 시급하다. 외국 여행이 일반화되고 이웃 일본 등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 해외여행 농장주들의 엄격한 추적 관리 등 가능한 제도부터 빨리 뜯어내고야 한다. 특히 가축 전염병 관련법들의 필요한 개정작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제역과 AI를 차단해야 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올해 초 아시아 국가에 구제역과 AI 창궐의 위험을 경고한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금호고속 2차 파업,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노조 인정 여부를 놓고 사측 및 구 노조 간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금호고속 새 노조가 또다시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호고속에 따르면 민주노총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구합 30일 오전 4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파업에 들어가 현재 시외버스 180회 가운데 13.3%인 24회가 감속 운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회사 측은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 위주로 운행을 감축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일부 노선을 다른 업체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한부 파업 일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다 노사 간, 노노 간에 갈등도 첨예하게 치닫고 있어 시외 및 고속버스가 '울 스톱' 되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금호고속이 속한 금호산업은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금호산업은 지난해 3분

기까지 118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이다. 임직원의 희생과 희생 의지, 회사의 자구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간의 갈등은 자칫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 들이길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이는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특히 시·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발'을 담보로 한 파업은 적지 않은 파장과 그에 따른 비난도 초래해야 한다.

우리는 금호산업의 회생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사 간, 노노 간의 관계 회복을 당부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와 그동안 성원하고 키워준 지역사회를 위한 방법인지 심사숙고하라 얘기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승림에 눈이 오니 가지마다 꽃이 다/한 가지 꺾어내어 남 계신 데 보내고/저/님이 보신 후에야 녹아진들 어찌리"(정철 '송강가사')

오랜만에 함박눈이 내렸다. 앞 산 소나무 가지가 휘어지도록 소복소복 쌓였다. 세상은 은빛 침묵에 잠겼다. 지난 한 해 고단했던 기억들을 물어버리려는 듯 세월에 쏟아지기 시작한 눈은 새해 첫 신세짜까지 이어지며 '눈누리'를 만들었다.

옛 시인들은 눈송이를 일컬어 육화(六花), 또는 육출화(六出花)라고도 했다. 눈의 결정이 여섯잎 꽃관 모양을 한데서 붙여진 별칭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 육화의 요정들이 산과 들을 온통 하얗게 수놓고 있다.

새해 벽두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수년만이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백성'이다. 광주·전남에도 30~40cm의 눈이 쌓였다. 하얀 산은 해맞이 등산객들의 마음을 부풀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폭설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됐지만 많은 시민들은

산에 올라 솟구치는 해를 맞으며 희망찬 한 해를 다짐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탓에 곳곳에서 도로가 막히고 양식장과 비닐하우스, 과수·인삼재배시설,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벽지 마을은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구제역 여파에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까지 겹쳐 시름에 잠긴 축산·양계농가와 방역당국을 더욱 힘들게 했다.

서설(瑞雪)



하지만 예로부터 새해 첫날에 내린 눈을 서설(瑞雪)이라 했다. 신년 벽두에 함박눈이 내려 쌓이면 풍년이 들고 나라에는 상사로 운 일이 생길 조짐이라고 믿었다.

그 시작은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바른 정치를 원하며, 전국민의 대학 교수들이 새해 사자성어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맹자의 '진심' 편 대설(大雪)이다. 광주·전남에도 30~40cm의 눈이 쌓였다. 하얀 산은 해맞이 등산객들의 마음을 부풀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폭설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됐지만 많은 시민들은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梁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2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대응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